

# 유란시아서

<< [제 3 편](#) | [부분](#) | [내용](#) | [제 5 편](#) >>

## 제 4 편

###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4:0.1 (54.1) **우주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물질 · 지성 · 영의 현상과 관계되는 영원한 목적을 가졌고 언제까지나 이를 집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자유 의지로 우주들을 창조했고, 온통 슬기롭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이 우주들을 창조했다. **파라다이스** 신들과 가장 높은 그 동료들을 제외하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다지 많이 이해하는가 의심스럽다. **파라다이스**의 높은 시민들조차, 신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질에 관하여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4:0.2 (54.2) **하나님**이 완전한 **하보나** 중앙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순전히 신의 성품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고 추론하기는 쉽다. **하보나**는 모든 다른 우주 창조를 위한 원본 창조로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에 있는 시간 순례자들을 위하여 최종 학교로서 쓰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하늘의 우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함이 틀림없다.

4:0.3 (54.3) 진화하는 필사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와 **최후 군단**에 이른 뒤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앞날의 과업을 위해서 그들을 더 훈련하는 계획은 현재, 일곱 초우주와 그 여러 종속 부서에서 주요한 관심거리의 하나이다. 시공의 필사자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승천 계획은, 결코 우주의 지적 존재들의 유일한 직업이 아니다. 정말로 하늘 무리들의 시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매력 있는 다른 일거리가 많이 있다.

##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4:1.1 (54.4)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란시아** 거주민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알고 있었다. 너희 세계에 신성하게 작용하는 섭리가 있지만, 그 섭리는 필사자가 상상해 왔던 것처럼 유치하고 멋대로인 물질적 봉사는 아니다. 하늘 존재와 신성한 영들이 연결되어 활동하는 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들은 우주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와 우주에 있는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한다.

4:1.2 (54.5)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너희는 우주의 표어가 **진보**인 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없는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류는 현재 위치에 이르려고 투쟁해 왔다.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섭리는 점진적 진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실제로 서로 반대되지 않지만, 반대된다고 사람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섭리는 결코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인간의 참된 진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섭리는 언제나 최고 **입법자**의 변치 않고 완전한 성품과 일치된다.

4:1.3 (55.1) “**하나님**은 충실하고,” “그의 모든 계명은 정당하니라.” “그의 충실하심은 바로 그 하늘에서 정해졌도다.” “아 주여, 언제까지나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고, 주는 모든 세대에게

충실하나이다. 주가 땅을 세우신즉 땅이 버티고 있나이다.” “그는 충실한 **창조자**이로다.”

4:1.4 (55.2) **아버지**는 그의 목적을 지원하고 인간을 부양하려고 아무 제한 없이 세력과 성격자들을 이용해도 좋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그 밑에 영구한 팔이 있도다.” “**최고자**의 은밀한 곳에서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리로다.” “불지어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아노라.” “주의 눈이 올바른 자 위에 머무르고, 그의 귀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려고 열려 있음이라.”

4:1.5 (55.3) **하나님**은 “모든 것을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드신다. 새로운 세계들이 태어날 때, “그는 **아들**들을 보내시며, 세상이 창조되도다.” **하나님**은 지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모든 영적 존재를 항상 떠받드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고, 겉보기에 불안정한 와중에 안정이 있다. 별들이 있는 영역에서 생기는 에너지 파동과 물리적 대변동 가운데 기초적 질서와 안전이 있다.

4:1.6 (55.4) **우주의 아버지**는 우주를 관리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놀고 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현재 지원하는 자로서 물러나신다면, 즉시 우주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실체 같은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득한 지난 시대와 영원한 앞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줄곧 떠받드신다. 신의 손길은 영원의 궤도 둘레에 미친다. 우주는 시계처럼 태엽이 감겨서 얼마까지만 가다가 그만 작동을 멈추지 않으며, 만물이 항상 새롭게 되고 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방출한다. **하나님**은 영적일 뿐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일을 하신다.

“그는 북쪽을 빈 공간에 늘어 펴시고, 지구를 허공에 걸어 놓으시느니라.”

4:1.7 (55.5)      내 서열의 존재는, 우주 행정의 일상 사무에서 궁극의 조화를 발견하고, 널리 미치는 뜻깊은 조정이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필사 지성이 보기에 연결되지 않고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것은, 내가 보건대, 질서 있고 건설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 우주와 초우주에서 이미 인정된 물력·에너지·지성·상물질·영·성격자들에 관하여 나는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들에 대하여 나는 얼마큼 정통하다. 이 대리자와 성격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대체로 이해하고, 대우주에서 인가받은 영(靈) 지능 존재들이 하는 일을 나는 소상하게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데도, 내가 넉넉히 헤아릴 수 없는 우주 반응을 나는 늘 보게 된다. 물력과 에너지, 지성과 영의 상호 관계가 우연히 들어맞는 듯한 일을 계속 구경하는데, 나는 이를 흡족하게 설명할 수 없다.

4:1.8 (55.6)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활동하신 직접 결과로 생기는 모든 현상의 작용, 그리고 대체로 **파라다이스** 섬의 작용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에 나는 전적으로 유능하다. 그들의 신비스러운 동급자, 세 잠재 **절대자**의 숨씨로 보이는 것을 구경하고 나는 당혹하게 된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갈아치우고, 지성을 초월하고, 영을 압도하는 듯하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치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항상 헛갈리고 자주 당황하는데, 이것을 나는 **무제한 절대자, 신 절대자, 우주 절대자**의 계심과 행위의 탓으로 돌린다.

4:1.9 (56.1)      이 절대자들은 우주에서 널리,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존재임이 틀림없고, 이 때문에, 공간 잠재력의 현상에서, 그리고 기타 초월 궁극자들의 활동에서, 시초 형태의 물력·개념 또는 영들이

최상의 적응과 궁극의 가치가 관련되는 복잡한 현실 상황의 요구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물리학자, 철학자 또는 종교가도 확실히 예측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4:1.10 (56.2) 시공의 여러 우주에는 우주 사건들의 전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듯한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 겉보기에 관계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랍게도 우연히 조정되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진화하는 **최상 존재**의 이 살아 있는 계심, 곧 신의 **계획된 불완전 내재**는<sup>[12]</sup> 때때로 설명할 수 없이 명시된다. 이것은 **섭리의 작용** — **최상 존재와 합동 행위자의 분야** — 임이 틀림없다.

4:1.11 (56.3) 우주 활동의 모든 단계 및 형태를 조정하고 서로 연결짓는, 널리 미치고 대체로 파악할 수 없는 이 통제 작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과 천사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다채롭고 겉보기에 희망 없이 혼란에 빠진, 잡다한 물리 · 정신 · 도덕 · 영 현상이 한 치도 어김없이 해결되게 만든다고 나는 믿고 싶다.

4:1.12 (56.4) 크게 보아서, 우주에서 겉보기에 “우연한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자들을 영원히 조종하는 무한자의 시공** 모험에서 벌어지는 유한한 드라마의 일부이다.

## 2. 하나님과 자연

4:2.1 (56.5) 좁은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물리적 버릇이다. **하나님**의 행위나 행동은 한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과 진화 형태에 따라서 제한되고, 임시로 조정된다. 널리 퍼지는

총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규명되고 변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는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나 진화로 펼쳐지는 유한한 사업들의 지역 목적 · 목표 · 계획에 따라서, 각 우주 · 별자리 · 체계 · 행성 · 성격자가 나란히 균형되어 행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행동 방식을 수정한다.

4:2.2 (56.6) 그러므로 필사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은 변함없는 **신**과 그의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의 바탕이 되는 기초와 근본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은 지역 우주, 별자리 · 체계 · 행성에 있는 세력 및 성격자들이 개시하고 실행해 온 지역 계획 · 목적 · 형태 · 조건의 작용으로 수정되고, 그 때문에 바뀌며, 이를 통해서 대격변을 겪는다. 예를 들면, **네바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법칙은 이 지역 우주의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수정된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너희의 행성에 살고, 너희의 직계 **사타니아** 행성 체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잘못, 임무 불이행, 불복종 때문에 이 법칙의 작용은 더 영향을 받는다.

4:2.3 (56.7) 자연은 두 가지 우주 요인(要因)이 시공에서 일으키는 결과이다. 첫째는 **파라다이스 신**이 변할 수 없고 완전하고 정직한 것이며, 둘째는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파라다이스** 바깥에 있는 생물의 실험적 계획, 집행 실수, 모반의 잘못, 불충분한 발육, 불완전한 지혜이다. 따라서 자연은 한결같고 불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완전의 실을 영원의 궤도로부터 가져온다. 그러나 각 우주, 각 행성, 각 개인의 생활에서 이 자연은 수정(修正)되고 제한되며, 진화하는 체계 및 우주의 생물이 저지르는 행위 · 실수 · 불충 때문에 어찌다가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자연은 늘 변하는 기분에 젖어 있어야 하고, 한 지역 우주의 운영 절차에 따라서, 밑에는 안정되어 있어도, 동시에 변덕스럽고 달라야 한다.

4:2.4 (57.1) 자연이란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을 완성되지 않은 우주들의 불완전 · 악 · 죄로 나눈 결과이다. 따라서 이 나눈 값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영원한 것과 현세의 것, 양쪽을 표현한다. 지속되는 진화는 **파라다이스**처럼 완전한 내용을 늘이고 상대적 실체의 악 · 죄 · 부조화의 내용을 줄임으로 자연을 수정한다.

4:2.5 (57.2) **하나님**은 자연이나, 자연의 어느 물력 속에도 몸소 계시지 않는다. 이는 자연 현상이 **하나님**이 세운 우주 법칙의 **파라다이스** 기초 위에, 점진적 진화를 겪는 불완전한 것, 그리고 때때로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결과를 겹쳐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절대로 자연은 전적으로 슬기롭고 무한한 **하나님**을 적절히 표현하고, 참되게 대표하고, 충실히 묘사할 수 없다.

4:2.6 (57.3) 너희 세계에서 자연은, 지역 우주의 진화 계획이 완전한 법칙을 제한한 것이다. 한정되고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연에 스며드니까, 자연이 보편적인, 따라서 신다운, 동력의 한 국면이니까, 자연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웅졸한 시늉인가! 자연은 또한 우주의 진화에서, 한 우주 실험의 발전 · 성장 · 진보가 아직도 진행되고, 불충분하고 어설프게 작용함을 표시한다.

4:2.7 (57.4) 자연 세계의 결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에 상응하는 티가 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게 관찰된 결점은 오히려, 늘 돌아가는 바퀴가 무한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정지 순간에 불과하다. 물질 인간의 유한한 지성이 시공에서 신의 실체를 얼핏 보게 만드는 것은, 완전의 연속에 있는 바로 이 결점이자 중지(中止)이다.<sup>[13]</sup> 사람의 진화된 지성에게, 신의 물질적 모습에 흠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오직 필사 인간이 자연 현상을 자연의 눈을 통해서 보고, 상물질의 상지혜나 또는 계시, 곧 시간 세계에서

보완하는 대용품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시력을 통해서, 계속 보기 때문이다.

4:2.8 (57.5) 자연의 일부인 생물, 세월이 지나자 자연의 얼굴을 보기 싫게 만들어 버린 수많은 생물의 반란, 그릇된 행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다쳤으며, 그 아름다운 얼굴은 상처를 입고 그 모습은 그슬렸다. 아니,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 3.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질

4:3.1 (57.6)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자로 생각해 왔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온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도 시샘하지 않고, 시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시샘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 아들**의 의도는 사람이 행성의 창조에서 걸작품이자 온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저열한 걱정애 지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나무 · 돌 · 금, 이기적 포부의 우상 앞에 사람이 절하는 광경 — 이 더러운 장면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들을 자극하고 사람을 위하여 경계하게 만들지만, 결코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는다.

4:3.2 (57.7) 영원한 **하나님**은 인간적 감정의 의미로, 또 사람이 그런 반응을 이해하는 바와 같이,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감정은 저열하고 비웃을 만하고 신답기는커녕, 도저히 사람답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한 태도는 **우주의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과 인자한 성질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4:3.3 (58.1)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배반의 널리 미치는 결과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격리되지 않은 세계에서, 진화 민족들은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훨씬 좋은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은 개념의 혼동 · 왜곡 · 곡해를 덜 겪는다.

4:3.4 (58.2) **하나님**은 그가 일찍이 하신 일, 이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가운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온통 슬기롭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행 착오에서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이 조건 없이 완전한 데 있다. 그리고 이 신의 선견(先見)은 효과적으로 창조적 자유 의지를 지도한다.

4:3.5 (58.3) **우주의 아버지**는 나중에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여러 우주에서 창조 성격자들이 계획하고 만드는, 의지를 가진 인간은 불행한 선택으로, 부모인 **창조자**의 성격에 때때로 신으로서 슬픈 느낌이 생기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하거나 뉘우치거나 슬픔을 느끼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분이다. 우주의 영적 성취 계획과 필사자 승천 정책에 따라서 아주 아낌없이 마련해준 도움을 받고서, 미칠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그의 자녀들이 이르지 못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아버지**의 마음은 슬퍼진다.

4:3.6 (58.4) **아버지**의 무한한 선은 시간 세계의 유한한 지성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단계의 상대적 선을 효과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 언제나 (죄가 아니라) 상대적 악으로, 반대되는 것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신이 완전히 선한 것은 필사자의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식별될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공간 운동에 있는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 선이 상대적 불완전과 반대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4:3.7 (58.5) **하나님**의 성질은 무한히 인간을 초월한다. 따라서 사람의 유한한 머리가 미처 믿음으로 깨닫기 전에, 그러한 신다운 **아들**들의 경우처럼, 신의 성품이 인격화되어야 한다.

## 4. 하나님을 깨닫는 것

4:4.1 (58.6)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서 정지해 있고, 독립되고, 변함없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에게는 바깥이 없고, 그를 넘어서도 없으며, 또한 과거도 미래도 없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에너지 (창조적 영)이자 절대 의지이며, 이 두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며 보편적이다.

4:4.2 (58.7)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니까, 절대로 독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신분은 변화와 거리가 멀다. “나, 주는 변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파라다이스** 지위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동일성에서 변화로, 고요함에서 움직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신다운 것으로부터 사람다운 것으로, 그리고 하나에서 이원(二元)과 삼자일치로 넘어갈 수 있는가 너희는 이해할 엄두도 낼 수 없다. 신의 불변성이 움직일 수 없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절대성의 명시를 수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다 — **하나님**은 바로 의지이다.

4:4.3 (58.8)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스스로 부과하는 것 외에, 그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으며, 오직 본래부터

영원한 그의 성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다운 질과 완전한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 의지 행동이 조절된다. 그러므로 최종의 선과 무한히 창조적인 자유 의지를 더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주와 관계된다.

4:4.4 (58.9) **아버지 절대자**는 중앙의 완전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다른 **창조자**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성격, 선, 그리고 다른 수많은 특징을 사람과 기타 존재들과 함께 가지지만, 무한한 의지는 **하나님** 홀로 지닌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오직 그의 영원한 성품의 감정에,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가 내리는 명령에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 친히 선택하며, 따라서 중앙 우주는 하늘처럼 완전하다. **창조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성, 아니 절대성 단계까지도 충분히 함께 가지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의지(意志)를 지도하는 최종의 지혜에 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계급 아들의 창조적 자유 의지는 더욱 활발하고, 온통 신답고, 절대적이 아니라면, 궁극성에 가깝게 된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의지로 자아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 의지,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4:4.5 (59.1) **하나님**의 절대성은 모두 일곱 수준의 우주 실체에 스며든다. 이 절대 성품 전체는 **창조자**와 우주 생물 가족의 관계에 종속된다. 온 우주에서 **삼위일체**의 응보는 정밀한 특징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주의 **하나님**이 시간 세계의 인간과 가지는 광범위한 모든 가족 관계는 신의 감정에 지배된다. 통틀어서 — 영원히 — 무한한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하나님**을 부를 만한 모든 가능한 적절한 칭호 가운데, 나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우주의 아버지**로 묘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4:4.6 (59.2)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 의지 행위는 힘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지능의 안내만 받지도 않는다. 신다운 성격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에게 자신이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의 인간 성격자들과 가지는 모든 개인적 관계에서, **첫째 근원 중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신의 사랑의 완전한 이상(理想)에 영원히 자극을 받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 부드러운 성품의 가장 좋은 표현이요, 그리함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4:4.7 (59.3)

**하나님**은 과학에서 **첫째 근원**이요, 종교에서 보편적이고 인자한 **아버지**이다. 철학에서 그는 혼자 힘으로 계시는 한 분이며, 존재하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으나, 만물과 모든 다른 생명에게 너그럽게 존재의 실체를 부여한다. 그러나 과학에서 **첫째 근원**과 철학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가, 종교에서 **하나님**, 곧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지상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남게 만들기를 서약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데는 계시가 필요하다.

4:4.8 (59.4)

우리는 **무한자** 개념을 몹시 바라지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생각, 곧 우리의 가장 높은 **신** 개념의 성격 및 신성 요소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파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

4:4.9 (59.5)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의식은, 존재에서 삽화적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에 감히 도전하는 인간의 그 믿음에서 생겨난다. 인간으로서 제한되는 끔찍한 광경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은 “나는 이를 할 수 없어도, 이를 할 수 있고 또 하실 분, 온 우주의 **아버지 절대자**의 일부가 내 안에 사신다” 하고 어김없이 외친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너희의 믿음조차 이기는 승리”이다.

## 5.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관념

4:5.1 (59.6) 종교적 전통은 지난 시대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부족하게 보존된 기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종교 생활의 안내서로서, 또는 **우주의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원천으로서 믿을 만하지 않다. 원시인이 신화를 지어낸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러한 고대의 관념들은 항상 수정되어 왔다.

4:5.2 (60.1)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유란시아**에서 생긴 혼란의 가장 큰 근원 중의 하나는, 너희의 거룩한 책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성격자들을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고, 또 **파라다이스 신**과 지역 우주의 창조자 및 행정가들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하여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과거의 섭리 시대에, 너희의 사제와 선지자들은 **행성 영주, 체계 군주, 별자리 아버지, 창조 아들, 초우주 통치자, 최상 존재, 우주의 아버지**를 뚜렷이 구별하지 못했다. **생명 운반자** 및 여러 천사 계급과 같은 하위 성격자들이 전해준 많은 말씀은 너희의 기록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쓰여 있다. **유란시아**의 종교 사상(思想)은 신의 동료 성격자들과 **우주의 아버지** 자신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

4:5.3 (60.2)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원시적 **하나님** 개념의 영향에 계속 시달린다. 폭풍 속에서 날뛰는 신들, 진노하여 땅을 잡아 흔들고, 성이 나서 사람을 치고, 기근과 홍수가 있을 때 불만의 심판을 내린다 — 이것들은 원시 종교의 신이요, 살아 있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은 우주가 그와 같은 가상(假想)의 신들이 번덕에 영향을 받고 지배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의 유물이다. 그러나

**최상 창조자와 최상 통제자들의 행정 정책과 운영에 관한 한, 필사 인간은 자기가 비교적 질서 있는 영역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4:5.4 (60.3)      성난 **하나님**을 구슬리고, 기분 상한 주를 달래며, 희생 제물과 고행(苦行)을 통하여, 또 피까지 흘려서, 신의 은혜를 얻으려는 야만스런 생각은 통째로 유치한 원시 종교를 대표하며, 이것은 과학과 진실의 시대, 깨우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학이다. 그러한 관념은 우주에서 봉사하고 다스리는 하늘 존재와 신다운 통치자들에게 온통 불쾌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또는 가상하는 신의 노여움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믿거나, 우기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4:5.5 (60.4)      **히브리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가 용서될 수 없다”고 믿었다. **히브리인**은 피를 구경하지 않고서 **신들**을 달랠 수 없다는 낡은 이교도 관념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하지만 **모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베두인** 추종자들의 원시적 머리로 생각하기에, 이를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 바치는 예식으로 갈아치웠을 때, **모세**는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4:5.6 (60.5)      너희 세계에 한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되는 것은, 행성에서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상황에 본래 있다. 이 일은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목적에 필요하지 않았다. 이 수여는 자기 우주의 체험적 통치권을 얻는 긴 모험에서, 우연히 한 **창조 아들**이 마지막으로 친히 하신 활동이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성질에 얼마나 큰 먹칠이었는가! 온통 준엄하게 차갑고 굳은 모습으로 인간이 겪는 불운과 서러움을 보고도, **아버지**다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흠 없는 **아들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르치다니!

4:5.7 (60.6) 그러나 **유란시아**의 주민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이러한 옛 시대의 잘못과 이교도의 미신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의 계시가 다가오고 있다. 인류는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물렀던 **창조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묘사한, 모든 아름다운 성질과 사랑스러운 속성을 가진 **우주의 아버지**를 이해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4:5.8 (61.1) [**유버르사**의 한 **신성한 조연자**가 발표했다.]

---

[12]: 4:1.10 신이 우주 안에 불완전한 상태로 계심.

[13]: 4:2.7 영화 필름 바퀴가 돌 때 사람이 인식하도록 각 그림마다 순간에 정지됨을 언급한다.

---